

민주 선거인단 모집 신기록 쓰나...대권 주자들 “내가 유리”

2차 마감 결과 186만명 넘어서 지난 대선 214만명 넘어설 듯 지지층 결집·경선 흥행 긍정적 각 후보 캠프 아전인수식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180만 명을 넘어서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는 각 예비 후보 진영이 조직을 총 동원한 영향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경선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인단에서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하면서 중간 득실 분석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마무리된 2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포함한 총 선거인단 누계는 약 186만 명이다. 오는 16~25일 3차 모집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규모였던 214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50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슈퍼워크’에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1·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선거의 대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지

사와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추가 단일화의 움직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터라 앞으로 모든 주자가 거둬 ‘조직 총동원령’을 내릴 전망이다.

각 캠프는 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두고도 아전인수식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목표로 삼은 과반 달성에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세론에 힘입어 선거인단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1위 후보인 만큼 모집단이 클수록 좋다”며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등 공조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많고, 자발적 지지자나 포럼 등 저변도 넓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응집력이 높은 캠프의 장점을 살려 조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 모집 규모가 이 지사를 앞선다는 주장과 함께 호남을 중심으로 충성도 있는 선거인단 모집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 진영 관계자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약진했다고 본다”며 “1·2위 주자와 비등비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나 이 전 대표 진영에 비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

상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가 적어 ‘공중전’에 치중하는 후보 주자들도 조직력이 전부가 아니라며 선전을 자신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측은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할수록 조직의 영향은 좋고 자발적 참여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전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단이 많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라며 “어느 한 후보 진영의 선거인단이 압도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결국 선거인단 투표도 전체적인 지지를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면 북도 한미훈련 수용할 것”

송영길 대표, 美 애스펜 안보포럼 “북, 제2 베트남 만드는 게 최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미국 애스펜 안보포럼에 참석,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개성공단 재개 및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15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

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미를 추진 중인 송 대표는 “개성공단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악화하는 북한 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

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북한은 미국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 안보에도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제재로 탱크, 오일, 제트 엔진이 부족해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으로 북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그런 방식을 허용(permit) 할 수 없다. 우리는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준석 “安, 요란한 승객...꼭 태우고 가야 하나”

“당 대표에 ‘철부지 애송이’ 표현 2030 젊은이에 어떻게 비칠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에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만 한다면 “(경선 버스의) 요란한 승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안 대표가) 타시던 차 좋은데,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버스 기사가 기본 나쁘게 쳐다본다, 이러면 그냥 문 닫고 가는 것”이라며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간단하게 묻는다. 합당에 예스(Yes)냐, 노(No)냐. 그랬더니 안 대표 쪽이 말이 길어진다”며 “합당하는데 오픈 플랫폼은 뭐고, 마이너스가 되는 합당은 뭐고, 플러스가 되는 합당은 뭐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슨 말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합당에 대한 의지가 그냥 별로 없는 것”이라며 “노라고 했을 때 오명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어디에다가 뒤집어써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 그러면서 이번 주로 합당 시한을 못 박은 데 대한 안 대표 측 반발을 두고도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진짜 웃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에서 자신을 ‘철부지 애송이’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SNS에서 “37살 당 대표에게 저렇게 말하면서 2030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당의 중도 공략 화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당 김윤 서울시장위원장이 전날 “국운이 걸린 정권교체를 앞에 두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합당 실무협상단 소속이었다.

이 대표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아니라 철부지 애송이로 보이니까 정상적인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드라마 ‘벤드 오브 브라더스’의 명대사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감사원장 사퇴 한 달만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절한 절차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의 취업을 가로막는 노조 중심의 기술어린 운동장을 바로 세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단호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치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